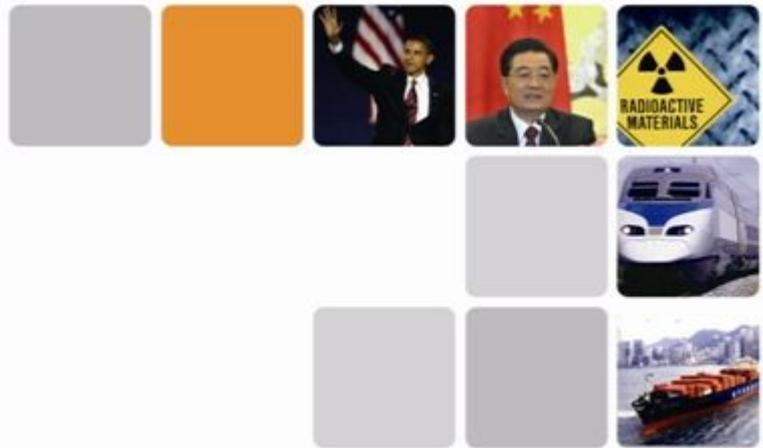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9.03 (통권415호)



경제이슈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상향 조정
7월 산업활동동향 소폭 개선

경영노트

프로세스 혁신의 세 가지 특징

사회 트렌드

쓰레기지수

저널 브리프

사회적 태만 해결 방안 : 피자 2판의 법칙

洗心錄

내면의 힘

□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상향 조정

- 미국 상무부는 29일 지난 2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가 가계 소비지출, 수출 등의 예상외 호조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발표
 - GDP 수정치 조정 : 7월 말 공개된 속보치 1.5%에서 수정치 1.7%로 0.2%p 상향조정
 - 가계 소비지출 :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지출은 당초 발표된 증가율 1.5%에서 1.7%로 상향 수정
 - 수출 호조 : 수출이 5.3%에서 6.0%로 상향조정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지 않음

- 미국의 2분기 GDP는 상향 조정되고 소비지출이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낮아짐

□ 7월 산업활동동향 소폭 개선

-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
 - 생산 : 서비스업(0.7%), 공공행정(3.1%), 건설업(6.8%) 등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6%) 이 감소하여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
 - 소비 :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및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증가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4%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2.5% 증가, 건설기성은 건축공사가 호조를 보이면서 6.8% 증가

- 최근 국내경제는 주요 실물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의 회복 지연과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움

□ 프로세스 혁신의 세 가지 특징¹⁾

- 마이클 해머가 업무절차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소개한 이래 다양한 종류의 혁신 프로세스가 도입되어 추진
 - BPR 이후,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사적 자원관리(ERP)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해 전사 차원의 정보를 통합해 최적의 의사 결정을 지원
 - 또한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품질관리를 시도하는 6시그마가 도입되어 경영 품질 제고와 인재 양성을 추구
- 현재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특정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화, 자동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초로 프로세스 혁신을 추구

<프로세스 혁신의 세 가지 특징>

	내 용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해서는 전사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 • 정립된 표준 프로세스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프로세스별 업무 순서와 규칙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 • 자동차 부품업체인 포레시아는 FES(Faurecia Excellence System) 이라고 불리는 114개의 전 세계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불량률을 10배 이상 개선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기업들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립된 표준 프로세스가 IT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화 • 글로벌 선도 금융기업들은 아침에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면 그날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 결재서류의 우선순위까지 팝업창에 표시 •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클릭하면 관련 사규, 전결 규정, 업무 규칙 등이 함께 제시되어 효율성을 증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와 자동화 단계를 거치고 나면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목표 대비 성과가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 • IBM은 프로세스의 준수 여부와 성과 창출 여부를 전사 경영 혁신 조직이 관리하고 있으며 각 프로세스별로 시간·비용·품질의 관점에서 성과 관리 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 • 모니터링된 결과는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되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

1) 'IT 적극 도입해 일하는 방식 표준화해야'(한경Business, 2012.08.20)를 요약정리함

□ 쓰레기지수²⁾

- 구매력을 나타내는 빅맥지수를 뛰어넘어 앞으로의 경제 상황 예측까지 가능한 ‘쓰레기지수(Index of trash)’가 나옴
 -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는 경제학자 마이클 맥도너프가 개발한 쓰레기 배출량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쓰레기지수를 개발
 - 쓰레기지수는 복잡한 계산법 없이 쓰레기 배출량만으로 측정됨
 - 빅맥지수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미국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 비교해 각국 통화 가치와 실질 구매력을 평가한 지수임
- 쓰레기양이 GDP 지수와 같은 변화폭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원리임
 - 경기가 좋아 소비지수가 좋아지면 현 물건을 버리는 양이 늘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 새 건물을 지으며 건축 폐기물이 늘어남
 -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GDP와 쓰레기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승·하강하는 변화율이 82.4%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게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쓰레기지수가 GDP보다 선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현재 미국의 쓰레기양은 GDP 곡선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음
- 쓰레기지수는 소비를 통해 거시경제를 내다본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는 정부와 기업 등 거대 경제 주체뿐 아니라 구매 행위를 하는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소비의 일반성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경제 상황 측정이 가능함
 - 맥도너프는 “쓰레기지수는 경제의 어느 부분도 제외하지 않는다”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현대사회 인간 모두가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힘

2) ‘쓰레기 보면 경제 미래 보인다’(문화일보, 2012.8.29)를 요약정리함

□ 사회적 태만 해결 방안 : 피자 2판의 법칙³⁾

-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태만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팀 규모는 10명 이하의 크기임
- 집단 내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함
 - 링겔만의 줄다리기 실험 결과, 8명으로 구성된 팀은 4명의 팀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팀원 숫자가 증가하면 게으름을 피워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도 감소하기 때문
- 링겔만 효과와 같은 구성원의 사회적 태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팀을 소수의 인원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
 - 소규모의 팀 구성은 팀원 간 밀접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 밀접한 인간관계로 인해 팀원 중 누군가 태만한 업무태도를 보일 경우 빠르게 이 정보가 전달되며 나쁜 평판을 얻은 팀원은 대인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
 - 상사로부터 받는 실적 압박보다 동료와의 대인관계가 팀원에게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어사(W.L Gore and Associates)의 경우 창업 당시부터 소규모 팀 단위의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적 태만을 방지
 - 또한 한 공장의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고 기준 인원수를 초과하면 추가로 공장을 건설함
 - CEO 빌 고어는 기존 공장 라인의 증설이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규모 조직의 장점이 공장 건설 비용을 상쇄한다고 주장
- 아마존(Amazon)의 경우 ‘피자 2판의 법칙(The Two-Pizza Rule)’을 통해 조직을 소규모 팀으로 관리하여 팀워크를 도모
 - 피자 2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6~10명이 최적의 팀 크기
 - CEO 베조스는 프로젝트 팀이 한 끼 식사에 피자 2판 이상이 필요한 팀은 과도한 인원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3) ‘줄다리기의 경영학:8명이 4명보다 못한 까닭’(매일경제, 2012.08.27) 참조

□ 내면의 힘

에밀 쿠에는 「자기암시」라는 저서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각종 병증의 원천이라면, 동시에 몸과 마음의 치료 역시 무의식의 몫이다. 가벼운 것이건 심각한 것이건 고쳐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무의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자기암시라고 한다. 물론 자기암시를 통해 무의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클로드 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다.

잠재의식은 스크린 위에 투영된
이미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만일 영사기나 원본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투영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거꾸로 뒤집히거나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이나 두려움, 역설 등은 모두 자신이 애써 투영하려고 하는
그림을 흐려 놓는다.
위대한 예술가나 문필가, 발명가와 같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마음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그릴 수 있다

내면에 잠재적 능력은 무한하지만 깨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나를 한 단계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싫증내지 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기와 믿음 등 긍정적인 자기암시 혹은 신념을 통해 잠재의식을 가꾸어 나간다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의심, 두려움 등 부정적인 자기암시 혹은 신념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자기 내면의 능력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을 제대로 느끼고 활용해 보자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 본 해피 : 독일의 목사